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관

탐방자: 조 현 양 | E-mail: hycho@kordic.re.kr
 연구개발정보센터 문헌정보사업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연구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 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의 연구 및 개발
- 건설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정책 및 기술개발
- 국가 건설기술정책의 수립, 평가 및 모니터링
- 건설공사 품질 인증 업무 등 정부 위탁업무의 수행
- 신기술 심의 및 산·학·연 공동연구의 종합관리
- 건설CALS 등을 통한 건설사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DB 제작 및 보급

연구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정보관 운영업무의 범칙 근거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및 그 하부규정에 의거 관련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다. 현재 건설정보관은 연구원 자료전산실 자료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목표는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기술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에 산재된 각종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축적, DB화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정보관은 건설교통분야 전자도서관구축, 건설기술문헌정보DB 운영,

정보서비스제도 운영, 건설기술정보 이용자원 확대를 위한 정보유통망 구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정보관 현황

현재 건설정보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전문도서 5만 여권, 해외기술보고서 16,000여권(MF 형태 보유), 학술잡지 800여종, 해외 CD-ROM DB 3종, 전자저널 1,700여종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확보하여 연구원 내부뿐만 아니라 연간 3-4천명의 외부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축된 DB로는 소장도서DB, 해외기술보고서DB 16,000여권, 건설기술정보DB 90만건(학술지 및 프로시딩류 기사색인DB 및 초록DB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2000년 9월부터 원문정보(Full-text)DB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원문정보 시범서비스 내역은 1,316건의 보고서 전문과 2,430건의 논문 등으로 총 35만여 페이지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건설산업분야의 지식기반사회 구축실현을 목표로 건설관련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각종 원문정보를 포함하는 건설전자도서관 구축사업(1999-2003)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 말을 목표로 현재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종 DB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건설정보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보유형분야의 진정한 발전은 KISTI(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독립적 발전이 아닌 과학기술관련 전문정보센터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정보관 운영, 즉 전문정보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하나 있다. IMF 이후 전문정보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



보유통제체 불 속으로 늦게나마 참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정보센터의 확보와 아울러 연구개발정보센터의 SATURN DB 활성화 및 건설

기술발전이 인건 감축과 예산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전산실도 그 예외는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전산실장을 비롯한 자료관리팀 전직원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을 열심히 뛰어다니며 각종 정보화 관련 사업과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예산의 확보는 물론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분야별 전문정보센터로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계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관리팀은 지난 1999년부터 연구개발정보센터가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유형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관련 초록DB가 1999년도에 1만 건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SATURN DB에 포함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4만여 건이 포함되어 전문분야의 정보로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로 탄생될 예정이다. 복합산업기술분야에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건설기술정보

가 과학기술경

기술발전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기술전문정보센터가 바라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년도에는 KORDIC과 KINTI가 통합되어 명실공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센터가 거듭나게 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보유형분야의 진정한 발전은 KISTI(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독립적 발전이 아닌 과학기술관련 전문정보센터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의 활용도나 중요도는 분야별 전문정보센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전문정보센터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KISTI가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전문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계몽의 정보를 취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KISTI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체 기관의 발전을 위해 거대 공헌될 수도 있다는 가정 때문이다. 앞으로 태어난 KISTI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 많은 전문정보센터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하나의 바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